전남도,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 나섰다

신규 규제자유특구 활용…디지털뉴딜·비대면산업 발굴
영광 e-모빌리티·나주 에너지신산업 실증사업 본격화

전남도가 지난해 7월과 11월 각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영광을 중심으로 한 e-모빌리티 산업과 나주를 거점으로 한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실증사업을 서두르며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 이와 함께 관련 정부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드론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친환경 전기차 개조·친환경 선박 제조 및 해상 실증사업 등도 새로운 규제자유특구 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단을 꾸리는 등 전남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남에 특구가 지정된 e-모빌리티는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진입금지구간 주행·실증'과 전기자전거, 개인용 이동수단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실증'을 지난 5월과 6월 각각 착수했다. 올해 안에 4륜형 이륜차와 농업용 동력 운반차 실증도 진행할 예정이다.

e-모빌리티 관련 9개 규제특례 실증이 완료되면 오는 2022년까지 핵심기업 27개사의 유치로 500여 개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고 1000억원 이상 신규 매출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남도는 설명하고 있다. 추후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충돌·소재·전자파 등 핵심부품 평가기반 고도화와 인공지능(AI)·드론·자율주행 등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용역 기획위원회를 운영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국가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압직류배전(MVDC) 핵심기자재 개발과 실증사이트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특구로 지정된 에너지신산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MVDC와 LVDC(저압직류)를 연계한 실증사업이 정부 추경에 110억원이 확정돼 MVDC 스테이션 구축 등 주요 실증사업에 큰 탄력을 받게 됐으며, 향후 시장에서 직류 배전망 분야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에너지신산업은 특구지역 내 직류산업 관련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등 직류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난해 11월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확산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한국전력 등 50여 개 에너지 전문기관·기업·학회와 함께 이를 구체화할 '전남 직류산업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 중이다.

올해 연말 특구 지정을 준비 중인 드론 산업은 전국 최대 규모 비행시험 공역(380㎢)과 항공인프라를 연계한 '비가시권 드론 제어용 주파수 신규 분배 실증' 등 다양한 실증사업 등을 통해 오는 2024년까지 45개 기업 유치와 신규고용 392명, 800억원 매출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과학기술부, 중소기업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드론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전기차 개조, 친환경 선박 제조 및 해상 실증사업도 새로운 규제자유특구 산업으로 지정하기 위해 준비단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새로운 규제자유특구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비대면산업 등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며 "지정된 특구산업이 조기에 실증을 마치고 기업유치로 이어져 지역 성장동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상생으로 일자리 지켜달라"

이용섭 시장 호소…금융거래 중단·협력업체 계약 해지 위기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법인계좌 압류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협력업체의 도급 계약 해지로 위기에 직면한 금호타이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금호타이어 노사는 상생의 정신으로 광주시민의 일자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60년 역사의 금호타이어는 광주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광주의 '자긍심'이 됐다"며 "시민들은 금호타이어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쏟아왔고, 위기 때마다 지역사회가 내 일처럼 발벗고 나서 힘과 지혜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경영악화로 법정관리 직전까지 갔을 때도 노사 간 상생협력과 '향토기업을 지켜내야 한다'는 지역민의 간절함이 더해져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으나 다시 위기를 맞았다"며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금융거래가 중단되고 협력업체가 경영난 가중을 이유로 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금호타이어 투자자와 고객은 물론 지역민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코로나19 위기와 더해져 일자리는 사라지고 지역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악화일로로 치닫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금호타이어는 하루 빨리 노사가 상생의 정신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고 경영을 정상화해 시민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며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광주'의 정신과 가치가 향토기업 금호타이어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 3층 '5·18과 언론', 9·10층 '5·18기억공간'이 지난 3일 재개관했다. 지난 5월11일 개관당시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일빌딩 245' 5·18과 언론, 5·18기억공간 재개관

9·10층 총탄흔적 원형 보존…하루 5차례 정기해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전일빌딩 3층 '5·18과 언론', 9·10층 '5·18기억공간'을 지난 3일 재개관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설날과 추석명절 당일, 1월1일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9층과 10층의 5·18기억공간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총탄흔적을 원형 보존해 공개하고 있으며, 1980년대 당시 금남로 일대와 전일빌딩을 중심으로 제작한 축소 모형과 헬기사격 증언으로 토대로 재구성한 멀티 어트랙션 영상쇼를 감상할 수 있다.

또 헬기사격의 진실과 거짓, 왜곡의 역사, 가짜뉴스, 전일빌딩 헬기사격 VR체험 등의 공간으로 구성해 관람객들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곳은 하루 5차례(11:00, 13:00, 14:30, 16:00, 17:30) 정기해설이 진행된다.

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재개관을 한 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을 실시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단체관람객 20명 이내 제한 등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했으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정부, 1천만달러 대북 지원

WFP통해 영유아·여성사업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10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

정부는 6일 제3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약 119억원)를 지원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원은 WFP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당초 지난 6월 의결이 추진됐다가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보류됐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대북 인도지원 결정이다. 이 장관은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 등 인도협력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꼽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결정은 인도적 사안을 정치·군사적 사안과 연계하는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서 벗어나, 이제 인도적 협력은 긴 호흡으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이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 지원은 WFP가 북한 내 7세 미만 영유아와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북한과 합의해 추진하는 사업에 정부가 일정 부분 공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북한 9개도 60개군 내 보육원·유치원 등의 영유아와 임산·수유부에게 영양강화식품 약 9000t을 지원하는 '영양지원사업'과 취로사업에 참가한 북한주민 2만6500명에게 옥수수·콩·식용유 3천600t을 제공하는 '식량자원사업' 등이다. /연합뉴스

레바논 폭발 참사 사망 135명·부상자 5천명

피해액 17조원 추산…충격파 세기, 히로시마 원폭 20% 이상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대형 폭발로 인한 사상자가 5천여명으로 늘었다.

하마드 하산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현지 방송 알마나르TV에 베이루트의 폭발 사망자가 135명, 부상자가 약 5000명으로 각각 늘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하산 장관은 아직 수십명이 실종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마완 아부드 베이루트 주지사는 이날 현지 방송 알하다스와 인터뷰에서 "폭발 피해가 발표됐던 것보다 커질 수 있다"며 "그것(피해액)이 150억 달러(17조82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아부드 주지사는 그 전에 피해 규모가 30억(3조5700억원)~50억 달러(5조9400억원)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4일 오후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두 차례 큰 폭발이 발생해 많은 건물과 차량 등이 파손됐다.

레바논 정부는 항구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돼 있던 인화성 물질 질산암모늄이 대규모로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레바논 최고국방위원회는 폭발 참사를 조사한 뒤 5일 안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레바논 방송 LBCI는 최고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인용, 근로자들이 문을 용접하던 과정에서 화학물질에 불이 붙었다고 전했다.

레바논 언론에서는 베이루트 폭발의 충격파 세기가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20% 이상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레바논 매체 '데일리스타'는 이날 앤드루 티아스 셰필드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의 분석을 인용해 베이루트의 폭발 규모가 TNT 폭약 1500t이 폭발한 것과 비슷하다고 전했다.

티아스 교수는 이 매체에 "(베이루트 폭발의) 충격파 세기는 히로시마에서 초래된 충격파의 20~30%에 상응한다"며 "매우 놀랍다"고 말했다.

1945년 8월 6일 미국의 원자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돼 7만여명이 즉사했으며 10㎢ 지역이 초토화됐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24시간 상담가능

본명 조영진
서울에서 스쿠알렌 사업 했을 때 이름 김홍삼
내 돈 갚아요 안 갚으면 고소할 거에요
신은선 010-3305-9974

전문건설업양도양수신청공고

주식회사 창우이엔씨(대표이사 김영식)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을 양도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아래 기한내에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7
주식회사 창우이엔씨

1. 양도할 건설업의 종류: 실내건축공사업(광주서2009-01-06)
2. 양도예정일: 2020년 09월 09일
3.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마감일
   가. 일 시: 2020. 09. 08. 18:00한
   나. 제출장소: 주식회사 창우이엔씨 〈연락처:061)381-0093〉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금성공단길 9-8
4. 양도자 상호: 주식회사 창우이엔씨
   대표이사: 김 영 식
   소 재 지: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금성공단길 9-8
5. 양수자 상호: 주식회사 세진이엠에스(SEJIN EMS.,LTD)
   대표이사: 박 용 원
   소 재 지: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금성공단길 9-8

흡수 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삼호엔지니어링(이하"갑"이라칭한다)와 주식회사 미건이앤씨(이하"을"이라 칭한다)는 2020년 08월 03일 각각 회사에서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을"을 흡수합병하고, "갑"은 "을"의 모든권리와 의무일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흡수합병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흡수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갑" 주식회사 삼호엔지니어링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줄포중앙로 47-1, 2층
대표이사 김 종 두
"을" 주식회사 미건이앤씨
전라북도 군산시 회현면 대위로 358
사내이사 심 은 희

회사분할 건설업양도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거성테크 주식회사는 2020년 08월 0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사 분할 절차에 따라 거성테크 주식회사(존속법인)의 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태양테크 주식회사(신설법인-가칭)이 승계하도록 하고, 건설업 포괄양도인가 신청을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거하여 양도인이 영위하는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고, 채권자 및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이 공고 게시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분할대상 건설업의 종류
   - 기계설비공사업(등록번호:광주광산2007-12-01)
2. 분할 및 양도예정일 : 2020년 09월 09일
3. 이해당사자의 의견 제출
   -2020년 08월 08일 ~ 2020년 09월 07일
4. 분할법인(양도자)
   - 상 호: 거성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영 숙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남길 53-5(도천동)
5. 신설법인(양수자)
   - 상 호: (가칭) 태양테크 주식회사
   대표이사: 심 상 진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남길 53-5(도천동)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두식(631115-X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서암대로100번길 42 (신안동)

피상속인 망 김두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0느단914호로 신청하여 2020년 7월 2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8월 7일

• 상속인 : 김초희(890904-XXXXXXX) 광주시 순암로36번길70, 203동 403호 (역동, e편한세상)
• 신고기간 : 2020. 8. 7 ~ 2020. 10. 16.
• 채권신고장소 : 상속인 김초희의 주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

산행안내

8월8일(토)
▲광주호산회 8월8일(토) 대원사 계곡 피서산행 대원사 둘레길,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8월22일(토)
▲광주호산회 8월22일(토) 거제 대통령휴양섬 저도 망봉산 트레킹,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8월29일(토)
▲광주호산회 8월29일(토) 거창 월성계곡 서출동류 물길트레킹,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출발 06:30, 롯데백화점 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